

식민지시기 의생활 계몽운동의 특성과 사회적 의미

조희진(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I. 머리말 : 식민지시기 의생활 계몽운동을 살펴보는 눈

의복은 입을 사람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상징물이며, 때로 한 시대의 흐름을 보여주는 시각적 지표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특정한 의복을 착용하거나 하지 않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로 여겨질 수 있지만, 당대의 사회적 시선과 규범이라는 제한된 범위 내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일면 철저히 사회화된 행위양식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결국 특정 시기에 등장한 의복과 그것을 둘러싼 의생활 전반의 모습은 개인의 선택과 사회적 제약이 적절한 선에서 타협한 결과이며, 당대의 특성과 시대적 단면 역시 이러한 구조 하에서 확인 가능한 것이다.

사회가 급격히 변화할 때에는 일상생활의 영역 역시 그 흐름을 따라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 역사 가운데서 식민지시기¹⁾는 그러한 변화가 비교적 극명하게 나타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이 시기에는 일본의 개입에 의해 강제적 개국과 외래문화 이식(移植)이 급격하게 이루어졌으며, 근대 또는 개화기²⁾라고 일컬어지는 시점과 미묘하게 맞물리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복잡다단한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변화는 정치, 경제 등의 국가적 차원뿐만 아니라 개인의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쳤고, 외래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거나 혹은 배척하려는 움직임과 근대화의 노정 가운데서 일반인들의 삶 속으로 폭넓게 확산되었다.

이 글은 식민지시기에 일어난 사회적 변화에 가운데서 특히 일상의 영역인 의생활³⁾과 관련된 계몽운동에 주목하여 그 특성과 사회적 의미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실질적인 대상은 식민지시기에 발간된 신문과 잡지이며, 이를 통해 각 매체에 실린 의생활 관련 계몽운동의 성격과 사회적 의미는 물론 그 등장을 뒷받침한 사회문화적 배경과 요인, 지향점을 확인하는 것이 이 글의 주된 서술 방향이다.

- 1) 이 글에서 설정한 식민지시기는 공식적으로 일본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진 1910년부터 1945년까지를 일컫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 시기는 근대와 동일시되는 등 복합적인 의미를 가진 시공간으로 여겨졌다. 이 모호한 경계를 벗어나 구체적인 개념으로 최근 등장한 것이 바로 '식민지 근대'이다. 이것은 근대화를 개화의 개념과 어느 정도 병치시켜 역사와 시간성을 중심으로 해석하려는 움직임이다. 즉 서구적 개념과 기준에 따라 구분되는 근대가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가 접촉한 결과로 나타난 역사의 한 과정으로 근대를 이해하려는, 문화적 차원에서의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태혜숙, 2004: 7~11). 식민지 근대라는 개념이 보다 우리 실정에 적합하게 여겨지는 것은 사회문화적 변화를 주체적으로 이끌어내갈 수 없었던 피동적 상황은 물론 시간적인 제한까지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식민지 근대라는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근대 또는 근대화라는 개념 자체를 서구적 기준에 따라 설정하는 데 따른 문화적, 사회적 한계를 극복하면서도 우리가 겪었던 격변의 시공간을 일컫는 개념으로 보다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하는 데 근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개화와 개량, 계몽이라는 패러다임의 등장과 서구의 사회진화론 또는 문명론의 도입 등이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김진송, 1999)는 점을 모두 고려한 시공간적 개념으로 식민지시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 2) 여기서 근대 또는 개화기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해당 선행연구의 제목이나 시기 구분에서 따온 것으로 본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근대 또는 개화기와는 일면 다른 시기로 구분될 가능성이 있다.
- 3) 이 글에서 '의생활'은 의복 자체의 구성이나 색상 등의 물리적인 속성을 아우르는 것이며 의복 생산은 물론 관리와 착용, 유행 등의 다양한 문제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시대를 막론하고 계몽운동에는 기존의 것을 바꾸겠다는 의지가 전제되어 있다. 대개의 경우 앞선 시대에 일상화된 습관이나 행위양식과 같은 것은 반드시 바꾸어야 할 대상으로 여겨지며, 이를 ‘개선’함으로써 더욱 나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과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특히 식민지시기 계몽운동을 뒷받침한 실질적인 행위 양식의 저변에는 근대로 나아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그리고 꼭 실천해야 하는 필수적인 단계라는 의식이 담겨 있었고 이 부분이 뚜렷이 강조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⁴⁾ 실제로 식민지시기 가운데서 의생활 계몽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구체화되어 나타난 것은 1920년대에서 1940년대까지였다. 가정 개량의 외침이 의식주생활의 전 영역을 겨냥하여 이루어진 1920년대부터 한복 치마에 어깨끈을 달아 여성의 가슴에 가해지던 압박감을 해소하고 날로 먹던 음식을 잘 익혀 섭취하여 기생충을 예방하며, 행랑과 부엌을 뒤로 보내는 대신 안방과 건넌방을 전면배치하자는 등 의식주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량 및 개조의 움직임이 전개되었다.

1919년 3·1운동 이후 ‘개조’는 사상계의 이슈였다. 이러한 열풍이 가정생활의 개량과 개조로까지 이어져 1920년 창간된 각종 신문, 잡지를 무대로 개조론 및 개조 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했다(권보드래, 2003: 56~58). 개량 및 개조의 일차적인 목적은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자는 것이었다. 그 가운데서도 의생활 계몽운동⁵⁾은 의복 형태를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바꾸어 일상생활을 효율적으로 영위할 필요가 있다는 자각과 각성으로부터 더욱 힘을 얻었다. 문화정치, 내선일체의 움직임이 노골적으로 활성화되었던 1920년대의 사회적 분위기에 힘입어 각종 잡지 창간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의생활 계몽 의도와 움직임 역시 정책적 차원은 물론 민간단체와 지식인 계층에 의해 더욱 구체화되었다. 그런 의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표출하고, 광범위하게 확장·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다수의 언론 매체가 이용되었음은 물론이다. 생활개선과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과 사례를 제시하는 기사가 많아졌고 지방단체들이 주도한 의생활 계몽운동이 중앙 일간지에 소개되면서 보다 다양한 형태로 세분화되는 모습도 나타났다.

□□동광□□, □□별건곤□□, □□삼천리 문학□□, □□대동아□□를 비롯하여 제목에서부터 여성용 잡지임을 표방한 □□신여성□□, □□여성□□, □□만국부인□□, □□가정지우□□와 같은 잡지는 의생활 계몽운동의 당위성과 방향, 구체적인 예시를 보여주는 매개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독

4) 사전적 의미에서 “17~18세기에 유럽에서 일어난 합리주의적 개화 운동. 중세적인 인습과 편견에 젖어 있는 사람에게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판단력을 가지게 하는 운동”으로 정의된다. 굳이 이러한 서구적 해석에 기대지 않더라도 식민지시기에 나타난 의생활 계몽운동 역시 근대화를 지향하는 합리적인 움직임으로 규정할 수 있다. 비록 시기별로 그 대상을 달리했지만, 지속적으로 다양한 개량 개조 논의를 연결했다는 점에서 이 시기의 의생활 계몽운동을 언론을 매개로 한 캠페인(campaign)의 일종으로 간주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비록 이 시기의 의생활 계몽운동이 명확한 조직적인 특성을 보이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언론 매체를 활용하여 끊임없이 독려하는 모습을 포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잡지의 발행인이나 필자, 신문기자 등이 이 시기에 신문물을 접한 신식 인간형이었음을 감안하면 이들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듯하다.

5) 사실 의생활 계몽과 개혁은 1894년 갑신의회개혁에서 이미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정부 주도로 이루어졌고 강제적 법령의 형태를 띠었다는 점, 그리고 관리들의 복제에 관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국민 대다수를 대상으로 한 계몽운동의 맥락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의복 개혁을 통해 ‘근대화’를 지향하려는 움직임이었고 개혁의 주된 내용이 기존의 복제를 ‘근대적’ 삶에 적합하도록 재편하기 위한 시도이자 의식 전환을 필요로 하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충분히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자층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에 따라 이들의 집필 방향이나 의도 역시 차별적으로 드러났다. 또한 필자가 누구인가, 시기적으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따라 어법이나 문체가 달라지기도 하였는데, 비슷한 시기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와 같은 일간지 기사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들 매체를 통해 드러나는 의생활 계몽운동의 실제 모습과 서술 방향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 글에서 모든 대상을 다루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당대의 대표적인 몇 가지 논의를 중심으로 식민지시기 의생활 계몽운동을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유형화하여 분석을 시도하게 될 것이다.⁶⁾

II. 식민지시기 의생활 계몽운동 유형과 지향점(1) :

조선옷 형태 개량 및 간소화와 합리성 추구

의생활 계몽운동 가운데서 초기에, 가장 빈번하고 광범위하게 논의된 것은 ‘조선옷 개량’이었다. 여기에는 조선옷 형태를 개량하고 의복 가짓수를 줄여 간소화함으로써 편의성을 추구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 ‘근대적 삶과 일상생활’에 적합하지 않은 거추장스러운 옷차림을 개혁한다는 차원에서 조선옷 개량과 간소화는 의생활 계몽운동의 일차적 대상이자 목표였다.

근대적 일상생활에 적합하도록 조선옷을 재편하기 위해 선택된 방안은 크게 두 가지였다. 일상생활을 할 때 입는 옷의 가짓수 및 크기를 줄이는 것과 조선옷의 형태를 개량하는 것으로, 엄밀히 말해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차원의 개선안이었다. 그러나 ‘조선옷의 근본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라는 차원에서 동일시되었고 각종 언론 기사와 기고문 등에서 명확한 구분점 없이 일괄적으로 언급되는 경향이 강했다.

근대화를 지향하는 사회적 분위기 아래서 전근대적 방식으로 많은 옷을 겹쳐 입는 것이나 걸음걸이와 일상적 활동에 장애가 되는 넓고 긴 옷을 입는 일은 서둘러 고쳐야 할 폐습으로 여겨졌다. 그런 까닭에 개량과 관련된 논의 역시 ‘통상복으로서의 조선옷’이 가진 불편함을 지적하는 것⁷⁾에서 출발하여 구체적인 개량개조의 대상과 방법을 제시하는 단계⁸⁾로 연결되었다. 전자가 전근대적 방식 그대로의 의생활이

6) 실제로 식민지시기 의생활 계몽운동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보다 구체적인 면모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운동의 성격과 그것을 주도하는 단체, 그리고 시대적 차이점을 보다 면밀히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를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7) “두루마기로 말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예복이라야 할지 통상복이라야 할지 큰 의문이며 만일 그것이 완전한 예복이 아니요 통상복이라 하면 매우 개량점이 많습니다. 대체 두루마기는 항상 몸에 휘휘 감기고 조금만 몸을 굽히기만 하면 앞자락이 땅에 끌리어서 실로 활동하는 사람에게는 큰 불평(‘불편’의 오기인 듯)을 끼칩니다. 그러함으로 남자의 두루마기도 좀 자르고 간편하게 하지 않으면 아니 될 줄로 압니다.”(辯護士 朴勝彬氏談, 동아일보, 1921년 4월 10일 기사)

8) “재봉양식으로 말씀하면 재래의 조선 부인의 의복이 가슴을 졸라매는 폐가 많았던 것은 말씀할 것도 없거니와 지금 여학생들같이 속옷 겹옷을 모조리 조끼를 달아서 어깨에 메면 이번에는 어깨를 압박하여 폐 [肺譜] 에 미치는 해가 있기는 역시 마찬가지이니 가슴과 어깨를 과히 압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나는 칠팔년 전부터 마음껏 고친 내의(內衣)를 입어왔는데 이때까지 입어도 아무 폐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내의를 아래위로 분하여 적삼은 길게 하여 도련에 단을 집고 끈을 꿰어서 허리 아래에 매게 하고 하의는 남자의 고의같이 만들되 양편 옆을 조금 타고 끈을 양편으로 앞뒤로 달아서 입게 한 것입니다. 가슴에도 관계없고 어깨에도 관계없고 지극히 편리한 것이니 만일 생각해보셔서 시험해보시기 바랍니다.”(淑明女校敎師 任淑宰, 「세가지들 통틀어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新女性』 제3권, 1925년 1월호)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우선 가짓수를 줄여 번거로움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다소 소극적인 차원의 기사였다면 후자는 이와 뚜렷하게 대별되는 것으로써, 실제 개량 사례와 기본은 물론 경험담까지 포함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으로 확대되었다.⁹⁾ 1920년대 초, 의복개량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면 1920년대 중반 이후에는 그것이 생활 속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독려하고 실질적 예(例)를 보여주려는 움직임이 더욱 절실했다. 의생활 계몽운동의 초기 대응방식이 비록 의식(意識) 전환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할지라도 의생활 자체가 실질적인 생활영역이었던 만큼 이에 대한 형태 개량 논의가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설득력과 실천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명확하게 무엇을 바꾸고 없애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이 뒤를 이었던 것 또한 의생활 계몽운동의 일부로써 조선옷 개량이 현실적 대상이자 급선무로 떠올랐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이를 반영하듯 동아일보를 비롯한 신문과 잡지에는 개량에 힘쓰는 지역과 단체에 대한 기사는 물론 관련 아이디어를 모집한다는 광고가 지속적으로 게재되었다. 일상복인 조선옷을 바꾸기 위한 노력인 만큼 그것을 특정 계층 내에 한정하기보다는 폭넓게 확장시켜 사회적 동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1924년 『개벽』에는 의복 생산의 주체인 일반 여성들에게 이러한 아이디어가 널리 읽힐 수 있도록 아이디어 전체를 언문으로 작성하여 보내줄 것을 당부하는 편집후기가 실리기도 하였다.¹⁰⁾

한편 조선옷 개량 방식과 방향에도 분명한 차이가 존재했다. 상대적으로 남성의 의복이 기존의 것을 크게 바꾸지 않는 가벼운 개량이나 수정의 차원에서 다루어졌다면, 여성의 것에 대한 논의는 훨씬 많은 대상에 대해 다각도로 이루어졌으며 낱말이 분해하여 재편하거나 완전히 개조하는 수준에 이르기도 하였다.¹¹⁾ 특히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은 모든 하의(下衣) 말기를 가슴께에 둘러 고정하는 여성의 착장 방식이었다. 이 시기 동아일보에 연재한 조선옷 개량 논의에서 김원주는 “우리 의복은 외면으로 보기도 좋고 아름다우나 내면(內面)으로 곧 생리적(生理的)으로 무서운 해가 있다하는 것입니다. 곧 말하자면 가슴을 동이게 된 것입니다”라고 지적하였고¹²⁾ 변호사 박승빈 역시 이 점을 언급한 바 있다.¹³⁾ 그는 “옷을 가슴에다가

9) “여자 의복으로 말하면 속옷을 좀 더 개량하여 몸에 가든하게 맞게 단 한 가지나 두 가지쯤으로 속몸을 가리게 하고 옷치마는 되도록 거추장스럽지 않게 단출하게 해입고 저고리 고름 치마고름 같은 것이 거추장스럽게 늘어지지 않게 할 도리를 연구하고 남자의 의복에는 우선 바짓가랑이를 더 훌쭉하게 하고 저고리와 두루마기에 고름을 달지 말고 단추를 달게 하여 두루마기를 폐지하든지 못하면 더 간편하게 할 도리를 연구하여야겠습니다. 예복이 아닌 평상복에 남자가 기다란 고름을 늘이고 다니는 것은 조선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方定煥, 『家庭啓蒙篇-살림살이 大檢討-家庭生活講義』 『新女性』 제5권 제3호, 1931년)

10) “특히 一般婦女에게까지 이 議論이 미치게 하기 爲하야 되도록 純諺文을 바랍니다. 期限 今年 10月 15日 開關社 新女性部 白” (『사고·편집후기 開關 讀者계, 朝鮮衣服改良에 對한 意見 募集』 『개벽』 제52호 1924년 10월)

11) 남성의 경우 근대화 초기부터 조끼와 같이 절충적 의복을 활용하거나 교복 등 사회생활을 위한 대체 의복들이 존재했던 반면 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그 폭이 매우 좁았고 허용되는 수위도 높지 않았다.

12) “우리 조선에서는 여자가 가슴을 꼭꼭 동이는 것이 예절이라 하였습니다. 속옷, 바지, 단속옷 치마의 허리로 겨울에는 허리띠라는 것까지 있기도 하며 동인 위에 또 동이고 동이고(夕) 합니다. 이 의복의 허리로 가슴을 동이는 것이야말로 진실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무서운 여러 가지 병의 원인을 짓는다 합니다. 첫째 허파의 수축(收縮)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여 호흡기(呼吸器) 병이 생기기 쉽고 또한 가슴 동이는 까닭으로 제일 많이

전부 동여매이고는 남자의 재롱거리 노릇이나 하는 여자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여자도 또한 활동을 하여보겠다할 때에는 반드시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이 많을 줄 압니다”라고 쓰고 가슴을 동여매는 것이 여성의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여성의 사회적 활동을 가로막는 원인이 된다는 점을 함께 지적하였다. 이들은 모두 조선옷의 착장 방식이 폐병과 유증을 앓게 하고 구부정한 자세를 만드는 원인이 되어 건강과 위생에 큰 해를 입힌다는 것, 여성의 활동을 가로막아 사회생활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게 만든다는 사실을 부각시켰다. 비록 조선옷의 착장 방식이 신체적인 결함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각종 질병이나 여성의 사회활동 부재로 연결시키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었다. 그럼에도 근대화에 대한 자각과 여성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강한 열망은 조선옷 개량이라는 실질적 변화의 맥락과 맞닿아 당대의 상황에 관한 극단적인 설명과 해석, 평가를 가능케 했다.

이때 의생활 계몽운동의 일차적 근거이자 조선옷 개량의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한 근거들로 선택된 것은 의학, 과학과 같은 ‘근대적 사고와 설명법’이었다.¹⁴⁾ 서구로부터 전해진 새로운 의학적 지식과 정보는 개량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고 위생과 건강, 의학 용어와 병명 등을 활용한 설명방식은 조선옷 개량을 필두로 하는 의생활 계몽운동의 당위성을 대변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Ⅲ. 식민지시기 의생활 계몽운동 유형과 지향점(2) :

유색화(有色化)를 통한 세탁 편의와 실용성 및 경제성 추구

식민지시기 의생활 계몽운동의 또 다른 유형은 의복의 유색화였다. 유색화를 추진했던 초기, 표면적 이유는 세탁과 다듬이질 등 의복 손질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여성의 노동력과 역할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데 있었다. 1924년 김미리사는 흰색을 무색(無色)으로 표현하여 유색화와 대비시킨 뒤, “우리 조선 사람의 생활이 복잡한데다가 의복에 대한 시간을 허비하고 나면 한 가정의 주부는 다른 데 불일을 못 보게 됩니다. 얼마나 불경제입니까”¹⁵⁾라고 반문하였고, 임숙재는 조선

생기는 병이 폐렴답아라 합니다. 우리나라 여자를 진찰하여 보면 다수는 폐렴답아가 있다하며 또한 늑막염(肋膜炎)의 원인도 흔히 가슴 동이는 데 있고 심장(心臟)에도 해가 있다 합니다. 그런고로 하루바삐 이 가슴 동이는 것을 면하는 무슨 도리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생리학상으로 연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선 우리가 서로 보기에 우리 중에는 체격이 바르지 못한 여자가 많고 가슴이 발달되지 못하여 허리가 굽고 키가 작은 여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신체가 허약하고 얼굴에 혈색이 없고 파리한 여자가 다수인 것은 언제 든지 방구석에만 갇혀 있는 고로 운동이 부족하고 또 신선한 공기를 마시지 못하여 넓은 사회의 사물에 접촉할 기회가 없는 고로 마음이 웅졸하여져서 조그마한 일에 공연한 잔걱정이 많이 있는 까닭이라고도 하겠지마는 그중에 가장 큰 원인은 가슴을 답답하게 동이는 까닭인 듯합니다.”(동아일보 1921년 9월 10일 기사)

13) “의복제도를 개량하자하는 것은 실로 큰 문데인 동시에 매우 어려운 문데일 것이외다. 그러함으로 도저히 여간 연구하여 가지고는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을 것이외다. 그러나 나의 의견에 제일 가합지 못한 것은 여자의 가슴을 단단히 매이는 것이올시다.”(동아일보, 1921년 4월 10일 기사)

14) “옛날 보통학교 선생님께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가 마튼 반에서 한 번 의복조사를 하니까 남자 어린 사람 하나가 옷을 네다섯 겹을 입었드라고요...중략...이렇게 되면 한참 때 더날 그 바룩이 불완전하게 될 분 아니라 빈혈이 되기 쉽고 임파선(淋巴線)이 부어 오르고 영양불량이 되야 나중에는 병세 걸려 죽게까지 되는 일이 만습니다.”(微笑生, 『家庭 요법에 어머니상식, 어린 사람 보건과 의복문제』 □□별건곤□□ 제69호 1934년 1월) 식민지시기 의생활 계몽운동의 저변에는 이렇듯 정보의 선을 넘어선 의학적 지식과 과학적 상식이 과도하게 동원되기도 하였다.

15) 김미리사, 『衣服改良問題-나의 實際經驗』, 『新女性』 제2권 1924년 11월.

가정의 부녀자들이 의복을 만들고 손질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다른 일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그러한 ‘불경제’가 여성이 시대의 흐름으로부터 뒤처지게 만들어 사회적 활동을 펼치는 데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하였다.¹⁶⁾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방정환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출입복과 일상복을 나누는 것, 유색화하는 것이 가져올 효과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직물의 종류와 염료를 잘 분별하여 활용함으로써 염색에 걸리는 시간조차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을 수치화하여 설명하였다.¹⁷⁾ 동아일보에 의복개량에 대한 글을 연재할 당시 유색화에 대해 뚜렷한 견해를 밝히지 않았던 김원주 역시 1925년 『신여성』에서 색채와 심미안의 문제를 거론하며 “문화가 발달된 나라에서는” 색채를 통해 사람의 성질이나 취미를 알 수 있다고 밝혀 서구 지향적인 성향을 숨기지 않았다.

이 시기 유색화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논지는 흰색 옷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에 실용적이지 못하며, 흰옷을 유지하기 위한 빨래와 다듬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으로 압축되었다. 간혹 외국인들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백색 옷 일색인 것이 괴이한 풍속으로 비친다거나¹⁸⁾ 다듬이질 때문에 약한 사람들이 마르게 된다¹⁹⁾는 억측 또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유색화 논의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각 지역의 흰옷 폐지와 유색화 운동이 보도되기도 하였는데, 정책적이고 강제적인 양상을 띠면서 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하고 개입하는 일도 벌어졌다.²⁰⁾

1926년, 『신여성』에는 흰옷 착용과 세탁, 그리고 다듬이질에 이르기까지 ‘흰옷 착용과 조선식 세탁법’의 불합리함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글이 실렸다. 시간 및 노동력의 낭비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의복을 자주 방망이로 두들겨 빨고 다듬이질하는 것이 결국 옷감을 닳게 만들어 불경제를 가중시킨다는 논리였다. 1934년 매일신보²¹⁾와 조선일보²²⁾에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다 뚜렷하게 각인시키기 위해 일인

16) “조선 가정 부녀들은 음식과 의복의 종 [奴隸] 이 되어 아침부터 밤까지 음식과 의복에만 붙들려서 헤쳐날 사이가 없으니 그 외의 모든 일에 어떻게 마음이 쓰일 사이가 있겠습니까. 신문이라 잡지 한 장 들여다 볼 사이조차 없으니 아동 지도에 뜻을 두어볼 사이 없는 것이 사실이요, 가정에 관한 연구나 사회경향에 눈여보기는 꿈에도 바랄 수 없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淑明女校教師 任淑宰, 「세 가지를 통틀어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新女性』 제3권 제1호, 1925년 1월)

17) “흰옷을 폐지하고 반드시 염색옷을 입게 하여 세탁하는 도수(度數)를 줄이고 또는 출입옷과 상용복(常用服)을 따로 준비하여 출입옷은 아무 때 입고 나서도 깨끗하도록 하면 여러 가지로 유익하고 경제적으로 이익될 것입니다. 내가 실제로 회색 무명옷을 입어본즉 보통 흰옷의 네 갑절 [四倍] 이나 더 입게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18) 동아일보 1921년 9월 30일 기사.

19) “의복으로 말하면 제일로 흰 것을 잘 입기 때문에 속히 더럽이 탄다. 그러니까 자연 자주 세탁을 하게 된다. 자주 세탁을 하려니 자연히 분주할 것이다. 자주 빨면 얼른 해진다. 또 별법으로 다듬이라는 것이 있어 고름기가 끝이 없다. 역시 의복이 속히 해지니까 불경제다. 그러나 그뿐인가. 다듬이를 많이 하고 나면 오래 약한 사람은 마른다.” (一記者, 「簡易한 生活改善」 『新女性』 제4권, 1926년 10월)

20) “평남 맹산군수 안정기(安定基)씨는 부임후로 민풍개선에 전력을 다하던 터이던 바 이번에 그곳 경찰서와 협력하여 매일 착수로 의복은 흰빛을 전폐하고 전부 검은옷을 입기로 하며…후략…” (동아일보 1924년 2월 6일 기사)

21) 매일신보 1934년 4월 25일 기사.

22) “조선 사람은 흰옷을 많이 입기 때문에 이에 따라 또한 옷이 자주 더러워져서 세탁을 자주 하고 됩니다. 그런데 최근 총독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조선 부인이 세탁에 낭비하는 노력은 적지 않은데 일인당 세탁 시간이 일년간에 일백 삼십육 시간이라 합니다. 이를 전 인구로 따져보면 삼삼억 삼천 팔백 육십 일만 구천 구백 삼십육 시간이라는 놀랄 숫자라고 합니다.” (조선일보, 1934년 10월 4일 기사)

당 세탁 시간을 수치화한 조선총독부 자료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흰옷 착용과 세탁 방식의 ‘불경제’는 흔히 인과론적 관계로 설명되었으나²³⁾ 의생활 계몽운동에 개입하는 주체와 필자들에 의해 간혹 다른 관점으로 해석되기도 하였다.²⁴⁾

식민지시기에는 경성과 지방을 막론하고 ‘민풍개선(民風改善)’ 운동이 활성화되었고 이 과정에서 유색화 논의와 실천이 구체화되는 가운데 강조된 것은 다름 아닌 경제성의 논리였다. 유색화를 실천함으로써 “경제상에 多大한 도움이 잇스리라고 일반은 만흔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잇다더라”²⁵⁾는 것이 이 시기 언론 보도의 주요 골자였다. 초기에 세탁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이유가 주를 이루었다면, 1940년대 전시동원체제가 구축되면서 여성 인력의 동원이라는 효율성의 맥락까지 확장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렇듯 유색화 논의는 식민지시기 의생활 계몽운동 가운데서 특히 물질과 시간, 노동의 경제성을 추구하는 방향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 것으로써 그 입지를 구체화하고 있었다.

V. 식민지시기 의생활 계몽운동 유형과 지향점(3) :

양복의 일상화를 통한 근대화 추구

조선옷의 형태 개량과 더불어 일어난 또 하나의 움직임은 바로 양복²⁶⁾ 수용이었다. 양복을 받아들이는 것은 근대적인 생활로 나아가기 위해 필수불가결하고 합리적인 선택으로 설명되었다. 양복의 편리함을 설파하는 논리는 비교적 단순해서 조선옷을 지을 때 드는 수고로움과 그것을 관리하고 재편하는 데 드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일상복을 양복으로 바꾸자고 제안하거나 양복 만드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기사는 192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더욱 많아졌다.

양복 입기를 권유하는 입장에서 가장 큰 장점으로 제시한 것은 한복과 달리 조이는 부분이 없고 크기가 넉넉하여 활동에 편리하다는 점이었다. 가슴에 동여 입는 조선옷 착용 방식을 개량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당대의 개량개조론과 부합되는 의견이었다. 양복 입기를 주장하는 측의 움직임은 여타의 의생활 계몽운동에 비해 구체적이고 자발적이며, 실천적인 특성을 나타냈다. 그 한 예로 1921년, 평양에서 여러 양복점이 연합하여 평양양복점조합(平壤洋服店組合)을 만들고 가격을 일치시켰다는 단신이 일간지에 실렸고 뒤이어 경성 시내 청진동에 위치한 조선여자교육협회에서 양복과를 신설하여 일반부녀자들에게 강습을 시작하고 저렴한 값에 양복을 만들어 판매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당시에 이를 전한 기사에서는 조선 사람들이 양복을 많

23) 의생활의 과학화라는 차원에서 이 시기 언론에는 의복의 짜든 때를 빼는 요령, 다림질 요령 등의 세탁과 관련된 다양한 상식과 지식들이 상당수 제시되었다. 특히 세제, 비누 활용 문제 등이 포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다분히 생활개선 의도와 연결된 것으로써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그것을 실행하여야 근대화를 이룰 수 있다는 논의 역시 간간히 등장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았다.

24) “세탁법을 개선하여 방망이로 두드리거나 다드미질을 하는 것을 철폐하여 의복을 손상치 아니하도록 하는 것이 백의를 색의로 개량하는 것보다 先務일 줄 압니다.”(京城帝大病院 金晟鎭, 『(家政學)우리 家庭의 衛生的 生活改善, 紙上 夏期大學』 『동광』 제36호 1932년 8월)

25) 조선일보 1925년 1.월 10일 기사

26) 흔히 신문기사 등에서 남성의 의복은 양복으로 여성의 것은 양장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 글에서는 둘을 통합하여 양복이라는 하나의 명칭으로 표기하려 한다.

이 입게 된 사회적 분위기를 전하고 부녀자들이 양복 짓는 법을 익힘으로써 한 가지 직업으로 삼을 수도 있다고 평가하였다.²⁷⁾

한편 1922년, 『개벽』에 기고한 글에서 선우전(鮮于全)은 “歐州의 문명이 세계 각국에 전파케 되매 양복이라는 것이 세계국제피복, 공통복이 된 것”이라고 전제한 후 “吾人이 자국의 고유한 제도와 습관을 전부 해체 破壞하여 타국의 제도에 전부 동화키 불능한 사정이 有한 이상에는 다소의 불이익과 불철저한 점이 有하다 할지라도 조선복, 양복병용주의를 行치 아니키 不能하다”²⁸⁾고 강조하며 근대화, 세계화 되는 현실적 상황 앞에서 조선복과 생활만을 고집할 수 없음을 역설하였다. 이후 1927년이 되면 “가정에서 할 수 잇는 양복 대리는 법, 자주 빨아서 집안 주부가 잘 주의해야 대려야 한다” 등 양복을 어떻게 손질하고 간수할 것인가에 관한 기사가 상당수를 차지하였으며 양복을 입을 때의 에티켓에 관한 내용이 지면에 등장하였다. 그런 가운데서 무분별한 양복 수용을 지양(止揚)하고 조선옷의 장점을 살려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하자는 종래의 주장은 192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양복 입기와 만들기, 생활화의 목소리에 다소 묻히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1930년대의 기사는 보다 적극적이어서 조선옷 한 벌 감으로 양복 두 벌을 지어 입을 수 있다는 등²⁹⁾ 서구적인 의생활의 합리성과 근대성이 강조되었고, 아울러 양복으로 주부의 숨씨를 알 수 있다는 등 이전에 조선옷을 짓는 숨씨로 부덕(婦德)을 가늠하던 것과 거의 유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1939년, 조선의 의복 개선에 대한 좌담회에서는 이갑수(李甲洙)는 “내가 실제로 경험해본 일이지만 남자는 양복 생활이 좋습니다. 전에는 늘 조선복만 입어온 시절이 있는데 지금은 양복만 통 입습니다. 그것이 여간 경제적이 아니에요”³⁰⁾라는 경험담을 전하였는데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아이들의 발육에 양복이 더욱 좋다는 식의 논지로 확장되기도 하였다.³¹⁾ 이러한 기사는 뚜렷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서구 지향적이고 근대 지향적인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양복 입기를 권하고 그것을 일상생활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며 조선옷과 완전히 대체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양복을 착용함으로써 보다 근대적인 모습의 삶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는 계몽적 사고를 반영한 것이었으며, 아울러 그러한 변화를 통해 현재의 생활을 바꾸어

27) “시내 청진동 이백십칠번지에 있는 조선여자교육협회에서는 요사이 그 회관 안에 양복과를 신설하고 □□□에서 공립양복학교를 졸업한 후 양복계에 다년 종사하던 이정희(李貞嬉)씨를 청하여 매일 밤 학과를 배우는 여기에 양복 짓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데 이는 참말 부인들에게 대하여 돌도 없는 좋은 기회라 하겠으며 더구나 지금 조선 사람들도 양복을 많이 입음으로 이것을 잘 배우면 부인으로는 한 가지 큰 직업을 얻는 것이 되겠다 하며 또 그 양복과에서는 선생과 익숙한 생도가 합하여 이상적으로 순실한 가음에 바느질을 하여 튼튼하고 맵시 있게 남녀양복과 어린아해 양복까지 만들어 사회에 가장 염가로 공급하고자 한다더라.”(동아일보 1922년 2월 1일 기사)

28) 鮮于全, 「우리의 衣服費, 居住費, 娛樂費에 對하여 朝鮮人生活問題研究의 其四」 『개벽』 제24호, 1922년 6월.

29) 동아일보, 1931년 6월 24일 기사.

30) 「座談會 家庭生活改善-朝鮮衣服改善問題」 『新女性』 제4권, 1939년 2월.

31) “양복은 품이 넓어서 끼이지 아니하고 모든 활동을 하기에 편리합니다. 발육이 왕성한 아기네들은 될 수 있는 대로 너글너글하고 가벼워야만 발육에 지장이 없으니 좋고 또는 위생적입니다. 양복은 겨울 여름 어느 때고 활동에 좋고 빨아 입기에 좋으니까 우리의 아기들에게는 가장 합리적인 옷인가 합니다.”(「조선옷과 양복 祥明高等技藝學院 裘祥明 양재에 대한 상식」 『家庭의友』 제20호, 1939년 5월)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일련의 기대가 담겨 있었다.

VI. 맺음말 : 식민지시기 의생활 계몽운동의 특성과 사회적 의미

식민지시기의 사회상에 대한 연구는 국가와 정치, 또는 경제적 측면과 연관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상당 부분 그 안에 논의의 틀이 한정되는 경향을 보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출발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거시적 차원에서의 분석 및 시대와 사회를 아우르는 거대한 변화의 틀을 제시하고 그것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학문적 영역의 확장, 사회과학 제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미시적 연구의 흐름과 맞물려 근대, 또는 개화기라고 하는 특정 시기에 대한 다양한 연구 성과가 개진되고 있으며 이 글 역시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당대의 언론매체 기사 분석을 통해 식민지시기 의생활 계몽운동의 유형화를 시도해보았다. 의생활은 일상과 관련된 것으로 가정생활 전반은 물론 사회·문화적인 영역과도 깊은 연관성을 가지며 사회가 추구하는 이상적 생활의 방향 또는 개선의 노력, 지향점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언론의 보도나 사회적 논의는 개선방향을 유도하는 하나의 움직임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런 까닭에 특정 시기의 언론매체에 주목하면 당대의 사회적 흐름 속에서 일상생활이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식민지시기에 나타난 의생활 계몽운동의 유형과 지향점, 그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 맥락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조선옷 형태 개량과 개조의 움직임이 일어났으며 이를 통해 일상생활의 편의성과 간소화를 지향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식민지시기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개량의 양상은 형태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었다. 일간지 기사나 잡지 기고문을 통해 조선옷이 가진 불편함이나 문제점을 자세히 지적하고 이를 개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생활의 편의와 실용성을 제시하는 것이 이때의 주된 논의 방식이었다. 조선옷에 대한 개량 또는 개조의 목소리는 조선옷의 가짓수를 줄이고 형태를 바꾸어 근대적 생활에 걸맞도록 고치는 작업과 직결되어 있었다. 즉 조선옷이 가진 불편함이나 문제점 등을 자세히 지적하고 그러한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생활의 편의와 실용성을 제시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자 지향점이었던 셈이다. 조선옷 개량에 관한 논의는 근대로 이행하는 사회적 상황에서 근대의 시공간에 적합한 생활 방식과 행동 양식의 표준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었으며, 근대적 인간형을 드러내는 시각적 지표를 완성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둘째, 조선옷의 유색화를 통해 세탁의 간소화와 경제성을 지향하고 과학과 의학의 논리와 상식을 도입하여 일상 영역을 개혁하려는 노력이 동반되었다. 흰옷을 입는 풍습으로 인해 세탁에 시간과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경제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적 시각이 핵심적인 명제였으며, 서구 사례를 제시하고 표본으로 삼음으로써 경제성 확보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특히 흰옷, 세탁, 의복 관리방식의 전근대성은 여성 노동력의 사회적 활용도를 떨어뜨리고 진출 기회를 막는 주된 요인으로

뾰혔다. 근대적인 시간관념, 사회적인 활동 영역의 확장, 여성의 사회참여 등 ‘근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획기적인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의생활 계몽운동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게 나타났다.

셋째, 조선옷과 양복 병행주의와 양복의 일상화를 통해 근대적 생활을 영위하는데 보다 많은 혜택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동반되었다. 양복을 입는 것이 세계적인 대세임을 지적하고 조선옷에 비해 활동성이 좋은 양복을 일상생활에 도입함으로써 근대적 생활을 지향하는 가운데 모든 생활을 점차 개량함으로써 근대화의 대열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조선옷 개량과 과학화가 일면 생활 개선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었다면 양복 입기와 서구화는 주로 외국 생활을 통해 신문물을 경험한 사람들이 권유하고 자신이 앞장서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구체화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긍정론과 부정론이 교차되는 가운데 의생활의 서구화 양상을 제시하고 그것을 소개하는 기사나, 유행 등과 관련된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기사가 자주 소개되었고 의생활의 서구화로 인해 나타날지도 모를 갖가지 사회적 위험요소에 대한 경계심을 일깨우는 기고문도 있었다. 서구화 혹은 근대화와 관련하여 다양한 기사가 나타났던 것은 서구화에 대한, 또는 그것을 수용한 사람들에 대한 양분된 태도와 사회적 해석 때문이기도 했다.

식민지시기 신문, 잡지를 통해 형성된 의생활 계몽 여론은 일면 서구화를 동경하고 이를 통해 근대적 생활양식을 확립해야 한다는 시각과 그 과정에서도 조선적인 것을 지킬 필요가 있으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주체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명분론이 대립하였다. 식민지시기에 조선옷을 개량하고 양복을 수용하는 것, 사회 전체에 퍼져 있는 개량과 개조의 움직임,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논의를 바라보는 시각이 마냥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³²⁾ 서구적 부자연스러운 세태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만들려는 시도이며 개량과 개조가 실생활에 너무 급속도로 변저 있는 현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다. 즉 개량을 하는 데 있어 자각과 주체적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경제적인 여건을 파악하고 조선에서 나는 생산물을 이용해 의식주생활을 영위하자는 내용이 이를 뒷받침한다.³³⁾

이 시기의 신문과 잡지는 당대의 다양한 실상과 변화의 모습을 전달하는 일차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개조, 개량론이라는 사회적 흐름 속에서 일상생활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를 지속적으로 다루었다. 그 과정에서 서로 다른 견해가 상충하는 가운데 다양한 논의의 장이 형성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실생활에서의 변화가 추동되었다.³⁴⁾ 여성, 여성 교육자, 문인 등 당시 사회 지도층으로 일컬어지는 인물들이 논의에 대거 등장하여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것은 매우 효과적이었다. 필자들의 지적 배경과 사회적 위치 역시 개량개조의 당위성을 뒷

32) 曉鍾, 「모름이 美로부터(感想)」 『개벽』 제17호 1921년 11월.

33) 「朝鮮의 特異한 處地와 이에 對한 特異한 救濟策」 『개벽』 제31호 1923년 1월.

34) 비록 사회적으로 개조와 개량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지만 그러한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조선옷의 특징을 지키는 가운데서 개조와 개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고, 양복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토산을 사용하여 피복비용을 줄이고, 기술 진보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었다(『별건곤』 제16·17호 1928년 12월 참조)

받침하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의생활 계몽운동의 실천적 주체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사회적 분위기 형성 및 경험적 사례에 대한 신뢰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이들의 어조는 매우 설득력 있게 여겨졌다.

의생활을 근대적인 형태로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과 계몽 의도는 각 매체에서 ‘계도형(啓導型) 기사’와 ‘정보제공 기사’의 형식을 통해 가시화되었으며 전자의 경우 필자의 출신, 성별, 소속, 기사 작성 시기에 따라 일부 논조의 변화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후자의 경우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변화의 실질적인 예를 보여주는 표본 역할을 했고, 이는 당대에 지향했던 변화의 방향을 시각적, 방법적으로 뚜렷하게 담은 일종의 지표와도 같은 것이었다. 이러한 계몽운동 속에서 지향했던 서구적 모델과 계몽 의도, 발전 방향은 전통적 의생활의 전근대적 방식과 철저히 대별되는 것으로 상정되었고, 때로 근대적 삶을 영위하며 ‘문화인’으로 살기 위한 전제조건처럼 제시되기도 하였다. 반면 전근대적 의생활은 우선적으로 극복해야 할 대상인 동시에 개량을 통해 변화시켜야 하는 미개함의 원천으로 규정되는 경향이 강했다.³⁵⁾ 이는 서양=산업화=도시화=발전=좋은 것, 동양=비산업적=농촌=저개발=나쁜 것이라는 도식체계가 자리 잡았던(김진송, 1999: 17~18) 당시의 모습을 보여준다.

식민지시기 의생활 계몽운동의 저변에는 근대의 표상으로 일컬어지는 시간성과 근대적 인간형, 합리적이고 근대적인 생활방식에 대한 복합적인 논의가 잠재되어 있었다. 근대로 이행하는 시기의 생활영역 변화와 사회적 의미를 살펴보는 것과 식민지시기 의생활 계몽운동에 대한 관심은 거시적 차원에서의 변화와 그에 대한 논의가 언론이라는 매체와 당대의 지식인이라는 거름망을 통해 일상의 영역에 어떠한 방식으로 스며들고 어떻게 작동하였는가를 살펴보는 준거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가정잡지』 『가정지우』 『개벽』 『근우』 □□동광□□ 『별건곤』 『부인공론』 『신가정』 『신여성』 『여자계』

동아일보, 조선일보, 매일신보

高永復, 「韓國社會近代化의 機能과 逆機能」, 『일본학』 Vol. 11, 1992.

공제욱, □□식민지의 일상, 지배와 균열□□, 문화과학사, 2006.

권보드래, 『연애의 시대』, 현실문화연구, 2003.

金鐘博, 「한국 개화기 여성의 근대화와 교육에 대한 고찰」, 『새마을연구』 Vol. 6, 1988.

김경일, 『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 푸른역사, 2004.

김미지, 『누가 하이카라 여성을 데리고 사누』, 살림, 2005.

김주리, 『모던 걸, 여우 목도리를 버려라』, 살림, 2005.

35) 대구변호사회장 함승호(咸升鎬)가 “생활형식의 불합리에 따라 우리가 받는 정신적인 타격과 손실도 不少한 터이니 우리는 될 수만 있다면 신문명의 혜택을 흡수하기 편리한 생활책을 講究하는 것도 한가지 급선무가 아닐까 생각되는 터입니다”라는 글을 기고한 것 또한 이와 같은 맥락이다(조선일보 1938년 1월 6일 기사).

- 김진구 외, 「매일신보광고를 통해 본 일제시대 한국 복식의 변천」, 『服飾文化研究』 제7권 제2호, 1999.
- 김진균, □□근대주체와 식민지 규율권력□□, 문화과학사, 1997.
- 김진송, 『서울에 판스홀을 許하라』, 현실문화연구, 1999.
- 김희정, 「‘別乾坤’을 중심으로 본 신여성의 복장에 관한 연구」, 『服飾文化研究』 제12권 제2호, 2004,
- 문옥표 외 지음, 『신여성』, 청년사, 2003.
- 박의경, 「한국 여성의 근대화와 기독교의 영향」,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ol. 25 No. 1, 2003.
- 신남주, 「1920년대 신여성 연구」, 『한국여성교양학회지』 제12집, 2003.
- 申榮淑, 「日帝下 新女性の 社會認識」, 『이대사원』 Vol. 21, 1985.
- 안선경 외, 「한국 근대 복식문화에 나타난 아메리카나이지제이션에 관한 연구 -192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의 잡지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Vol. 25. No. 1, 2000.
- 梁秉祐, 「《근대화》의 개념」, 『歷史學報』 第33輯, 1967.
- 이명선, 「근대의 ‘신여성’ 담론과 신여성의 성애화」, 『한국여성학』 제19권 2호, 2003.
- 이소연, 「일제강점기 여성잡지 연구」, 『梨大史學研究』 第29輯, 2002.
- 임숙자 외, 「개화기 이후 여성복식의 100년 변천사에 관한 연구」, 『服飾文化研究』 제2권 제2호, 1994.
- 조진숙, 「1930년대 복식의 기호학적 분석」, 『服飾文化研究』, 제4권 3호, 1996.
- 태혜숙, 『한국의 식민지근대와 여성공간』, 여이연, 2004.